화성형 코로나19 피해 긴급 대응 예술지원 공모를 심의하며

2020.6.1.

(재)화성시문화재단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화성형 코로나19 피해 긴급 대응 예술지원은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중단되고 축소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한 공모입니다. 먼저 진행한 바 있는 지역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예술활동'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었다면 이번 공모사업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으로 예술활동은 결국 예술인으로부터 비롯되고, 지역의 예술활동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예술인을 위기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관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으로 '예술활동'의 개별성을 사유로 동일 예술인에 대한 중복지원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최대한 많은 예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공공지원 실적이 있는 예술인‧단체는 공모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예술인의 행정작업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덜고, 빠르게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시스템을 유연하게 운영하였습니다.

- 신청서 서면 신청 대신 네이버 폼 신청
- 기존 작성된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게 자율양식 포트폴리오를 제출
- 예술인 패스 제출 가능

예술인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공연장과 전시장이 폐쇄된 상황에서 창작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된 취지입니다. 예술인 지원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인 가치를 보호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사업의 관점을 심의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일 수 있는 예술의 범위를 정의해야 하며 그 부분이 심의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심의 시 단체소개서 및 포트폴리오를 근거로 예술인‧단체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심의하였으며 생활문화와의 차별성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 있는 상황에서 '예술인'이라는 특수한 범위의 계층을 한정지어서 지원하는 특수한 공공지원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예술활동의 진행이 올해 하반기 이후로 유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어진 준비기간을 창작활동에 매진하며 위기 극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더 풍성하고 값진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술인‧단체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공연부문 심의위원 : 신동원, 임정은
시각부문 심의위원 : 김선문, 박우찬
(가나다순)

끝.